光州日報 Weekend

제1745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5월 27일** (음력 5월 1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7(土)	28(日)
흐리고 비	비온뒤 갬
17 / 20℃	14 / 20℃

News

- 선거 로고송도 트로트 열풍 ②
- 월드컵 성공기원 한복패션쇼 ③

Jeollado ⑦

- 풍수-관두산의 신부천재혈

Entertainment

- 이제는 '주인공 이문식' ⑧

- '강적' '괴물' 줄줄이 개봉 ⑨

Books

- 위험한 키즈 마케팅 공세 ⑩
- 책속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⑪

Wellbeing

- 식품 탐구-수박 ⑬

- 골프 실전 클리닉 ⑲

한국, 보스니아에 2대0 승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한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평가전에서 두번째 골을 넣은 조재진이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연합뉴스

막판 부동층 표심잡기 총력

지방선거 D-4

민주 '굳히기'-우리 '뒤집기'

주말·휴일 중앙당 지원 유세

접전지 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5·31 지방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각 당은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 20~30%에 달하는 부동층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7일과 28일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우위를 다졌다며 '대세굳히기'를, 열린우리당은 대반전을 노리며 '막판 뒤집기'를 위한 총력 유세전에 나선다.

열린우리당은 26일 김근태 최고위원이 이끄는 '사랑유세단'이 광주 서구와 북구, 여수, 고흥, 영암, 무안 등에서 지지 유세를 펼쳤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달라"며 우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열린우리당은 주말과 휴일인 27일과 28일 중앙당 최고위원과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인 조영택·서범석 후보와 함께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면서 유권자들과 접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당 관계자는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가정에 도착하는 주말과 휴일 대반전이 시작될 것이며, 광주시장과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대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 단체장 선거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대세가 이미 굳혀졌다고 보고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서구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27일과 28일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의원들이 잇따라 서구를 방문하며, 28일에는 광주지역 후보들이 참석하는 '5·31 지방선거 필승 대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열린당의 대반전 시도는 이반된 민심 때문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상 선대위원장은 26일 보성과 고흥, 장흥, 강진, 영광, 장성을 돌며 민주당 후보에 대한 릴레이 지원유세를 펼쳤다.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와 정균환 전북지사 후보는 26일 전북도의회에서 '호남권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고 호남발전연구원 설립과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호남고속철도 동시 착공 등 12개 공동번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과 권영길·노회찬·심상정·최순영·현애자 의원 등 의원단은 26일 광주와 순천 등지에서 집중 지원 유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박재순 전남도지사 후보는 이날 영광과 해남, 진도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재오 원내대표는 27일 광양과 순천, 광주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

각 당은 특히 박빙의 접전 지역에서는 부동층 표심과 특정 세대 및 지역유권자 집단의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고 보고 부동층의 흡수와 투표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지방선거 광주·전남 연대 선정 '막개발·헛공약'

일자리 10만개이상 창출 '空約'

민주당 9건·우리당 5건·민노당 4건·무소속 1건

"경제정책 추상적…국비·민자유치 방식 대부분"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가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광주 서구청장 후보들의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등을 대표적인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경제분야, 기초단체장은 복지정책에 치중해 자치·문화·생태환경·여성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전남연대는 26일 광주시민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조영택 광주시장 후보의 '15만개 일자리 창출'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 민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의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과 '항공우주산업 육성', 열린우리당 서범석 전남지사 후보의 '10만개 일자리 창출'을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 제시했다. 또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민주노동당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의 '1시·군 200 병상 이상 공공병원 신설' 등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막개발·헛공약에 꼽혔다.

광주전남연대는 또 광주 기초단체장 후보의 막개발·헛공약으로 ▲열린우리당 김종식·민주당 전주언·민노당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의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민주당 유태명 동구청장 후보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 ▲민주당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의 '광주아시아음악타운 조성' 등 10개를 선정했다.

광주전남연대는 이번 공약평가의 기준은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막개발·헛공약은 19건(후보자간 중첩 공약 6건 포함)으로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5건, 민노당 4건, 무소속 1건 등이었다.

광주전남연대는 이날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시·도민들에게 약속했으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너무 추상적이고 지방비보다는 국비나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상수지 적자 9년만에 최대

지난달 15억3,000만 달러

환란 후 첫 석달연속 적자

지난달 경상수지가 9년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이후 3개월째 적자추세가 이어지면서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말 이후 처음으로 석달연속 적자를 기록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6년 4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5억3천만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 97년 4월(16억2천만달러) 이후 9년만에 최대의 적자폭을 나타냈다. /연합뉴스